

"예상보다 회복 빨라져"...韓銀, 성장전망 높인다

전망치 3%서 3.3%로 올릴듯
이주열 "저금리 기조는 유지"

김정환 기자 입력 : 2021.03.24 17:54:51 수정 : 2021.03.24 20:06:30



◆ 韓銀 경기 전망 ◆

한국은행이 오는 5월 종전 3%로 봤던 올해 국내 성장률 전망치를 끌어올린다. 미국·중국 등 주요국 성장세가 강해지며 국내 수출과 투자 회복이 예상보다 빨라졌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경제계에서는 한은이 성장률 전망치를 3.2~3.3%까지 올려놓고 앞으로 경기 추이를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이주열 한은 총재(사진)는 출입 기자단과 서면으로 한 현안 관련 질의응답에서 "최근 주요국에서 확장적인 거시정책이 이어지는 가운데 백신 보급이 점차 확대되면서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국내 경제도 수출과 설비 투자 증가세가 당초 예상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추경) 투입으로 올해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인 민간소비가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 총재는 "추경이 집행될 경우 올해 성장률을 추가로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며 "향후 성장 경로에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올해 국내 성장률은 종전 전망치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나리오별 전망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경제 전망 때 밝히겠다고 전했다. 통상 한은이 매년 2월, 5월, 8월, 11월 경제 전망을 내놓는다는 데 비춰보면 5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상향 조정된 국내총생산(GDP) 성장 전망이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수출, 추경 상황 등을 반영하면 한은이 우선 3.3% 안팎으로 성장률을 올릴 것 같다"며 "특별한 위기가 없다면 올해 3.3% 이상으로 성장률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이 총재는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그는 "아직 실물경제 활동이 잠재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통화 완화) 정책 기조를 서둘러 조정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韓銀 "추경으로 소비진작" 기대..."기저효과 감안해야" 시각도

기획재정부·IMF·OECD 등
올해 3.1%~3.3% 성장 전망
한은도 성장률 키맞추기 나서

"추경으로 약 20조원 풀리면

관련뉴스

"물가 2분기 단기급등 우려...하빈

'2%대 성장' 전망하던 민간硏도 3

韓銀 "예상보다 회복빨라" 성장전

숨만쉬고 22년 저축해야...직장인

정부 경기진단서 9개월만에 '불확

인기뉴스

종합 연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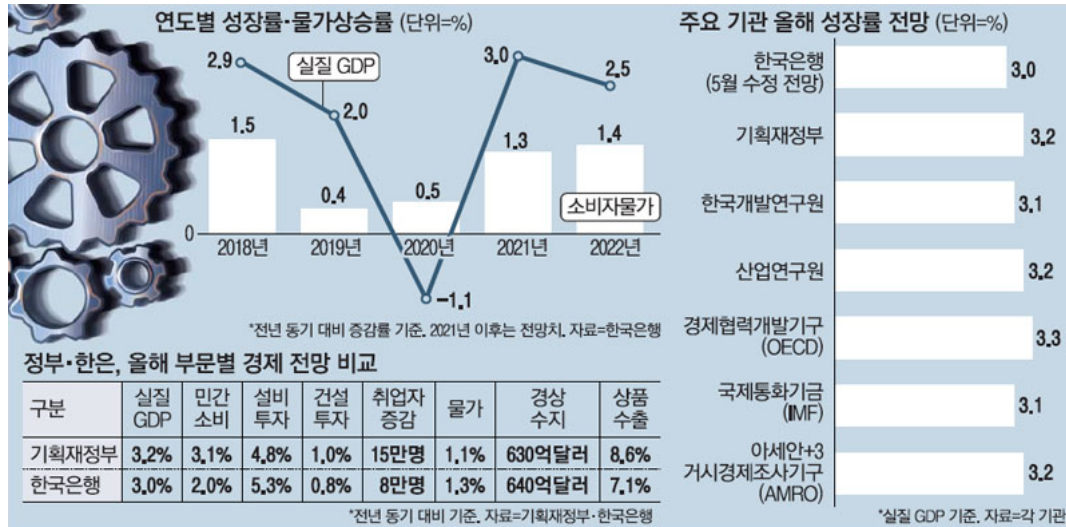
가장 많이 공유된 기사

- 1172 美연준 "기후변화로 금융
- 611 안철수 46% vs 박영선 38%
- 416 아마존 뽐치는 쿠팡의 '디
- 405 [단독] 애플사스, 삼성에 "
- 360 신한울 1호, UAE선 원전 4
- 353 벌써 '새 서울시장 효과'...
- 305 [기고] 기초학력은 인권이
- 291 33만명 보유 유명 유튜브버
- 246 '제2쿠팡' 노리는 K유니콘
- 222 오십에 크레파스로 그린

포토

GDP 0.2%p 끌어올릴 것"

코로나 재확산이 향후 변수



2021 국가대표브랜드대상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를 찾습니다.
접수: 3월 31일까지 문의: 02-2266-0033

24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오는 5월 종전 경제성장 전망(3%)을 올리겠다고 예고한 것은 최근 강하게 반등한 수출 등 우리 경제에 퍼지고 있는 온기를 일단 담고 가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올해 한국 경제 '고질병'인 민간 소비는 약 2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투입되며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다만 올해 3%대 성장에 안착하기 위한 핵심 변수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미·중 무역갈등 △전 세계 경기회복 지속이 손꼽힌다.

코로나19로 받은 내상이 여전하고 수출 의존도가 크게 높아진 가운데 소비·수출 부문에서 돌발 충격이 나오면 역풍을 크게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성장률 간극 메우기 나선 한은

현재 한은이 낸 성장 전망은 기획재정부(3.2%), 국제통화기금(IMF·3.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3.3%) 등 국내외 주요 기관에 비해 낮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출 회복에 발동이 걸렸지만 한은은 지난달 경제 전망에서도 종전 수치를 고수했다.

그렇던 한은이 성장률 상향을 예고하며 다른 기관과 '키 맞추기'에 나선 것은 실물경제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한은 성장 전망의 주춧돌은 상품 수출과 민간 소비다. 한은은 올해 수출이 회복은 되겠지만 그다지 강하게 치고 나갈 것으로 보지는 않았다.

하지만 최근 수출 뚜껑을 열어 보니 상황이 달라졌다. 단순한 기저효과(지난해 실적 급감에 올해 숫자가 커 보이는 현상)가 아닌 수출 본연의 체력 회복을 더 많이 반영하는 실적이 줄을 이었다. 코로나19 충격이 컸던 지난해 이전으로 시야를 넓혀 봐도 유의미한 기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전년 대비 47% 불어난 지난달 자동차 수출은 2월 기준 7년 만에 최대치로 늘었고 11.7% 늘어난 지난달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은 9개월째 늘어 역대 2위 실적을 기록했다.

다만 백신 접종 전선에 이상 등이 생겨 글로벌 교역 회복에 찬물을 끼얹으면 이 같은 호재는 급격한 악재로 뒤바뀔 수 있다. 이 총재는 "향후 경기회복세는 코로나19 전개 양상과 백신 보급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글로벌 반도체 경기, 미·중 무역갈등도 경기 흐름에 주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수출과 소비가 늘어나겠지만 기저효과도 감안해야 한다는 시각을 내비쳤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미·중 성장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유럽(EU)에서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록

다운(경제 봉쇄) 조치가 강화하고 있다"며 "백신 보급 안착 여부가 향후 경기 표정을 결정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추경효과` GDP 0.2%p 오를 듯

올해 최대 난제인 민간 소비에 대한 시각도 바뀌었다. 지난달 한은은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민간 소비가 2% 회복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11월 전망(3.1%)보다 오히려 악화한 것이다. 이날 이 총재는 이 같은 소비 악재를 추경으로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다고 봤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1~4차 추경(67조 원)으로 성장률이 0.5%포인트 올라가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는 추경으로 약 20조원이 풀리면 성장률이 0.1~0.2%포인트 오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 중장기 저성장 리스크 여전

문제는 내년 이후다. 올해 추경 등 단기 효과에 우리 경제가 올해 3%대 성장을 하더라도 내년 이후 저성장 위험은 피할 수 없다. 이날 한은에 따르면 2019~2020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5%로 2001~2005년(5.1%)과 비교해 반 토막 난 상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총요소생산성(0.9%포인트)이 1%포인트 이내에서 정체된 게 주원인이다. 쉽게 말해 아무리 자본과 노동력을 쏟아부어도 기술, 경영 혁신 등이 약해지며 한국 장기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는 뜻이다.

정선영 한은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성장세 둔화는 일시적 경기 회복 지연이라기보다는 구조적 변화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는 "규제 개혁과 기업환경 개선을 통해 돈의 흐름이 성장 산업으로 흐를 수 있도록 정책을 짜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은 #이주열 #김정환 #한국은행

오늘의 하뉴스

"수십억도 거뜰"...미술품 쓸어담는 2030 컬렉터 5시간 45분
박영선·오세훈...누가 이기든 '세금먹는 하마' 생길판 6시간 22분
나와 누가 별을 딸텐가...대선판 '상왕'이 소환했다 7시간 18분
마지막 지시도 "맛과 품질"...'라면왕' 신춘호 별세 6시간 55분

김상조 靑실장, 法시행전 전셋값 대폭 인상 6시간 48분

당신이 좋아 할 만한 기사

댓글

시선집중

뉴스	오피니언	스포츠	라이프	프리미엄	재테크	비즈니스	교육
경제	사설	야구	날씨	매경e신문	증권	넷케이텔레콤	오프라인
기업	기명칼럼	축구	골프	매경프리미엄	부동산	신설법인	어린이경
사회	사외칼럼	당구	여행	레이더M	경제용어	한국데이터거래소	매경TEST
국제	매경포럼	일반	Book	레이더P	해외DB		
부동산	매경데스크		우버인사이트	오늘의 매경			
증권	주말칼럼	연예	MK생애설계센터	캠페인	매거진		서비스
정치	특별칼럼	주요뉴스	LUXURY M	세계지식포럼	매경ECONOMY		구독신청
IT·과학	전문기자칼럼	스타인터뷰		국민보고대회	매경LUXMEN		MK모바일
문화	기자24시	TV·방송		세계한상대회	시티라이프		신문PDF
기획·연재		가요·음악		정진기언론문화상	골프포워먼		트위터
Special Edition		영화					페이스북
영문뉴스		해외연예					RSS
중문뉴스							뉴스레터
일문뉴스							